22. 종군위안부

전장의 군인 노리개로 20만 명 끌려가

"일본땅 모두를 준다 해도 망가진 내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합니까. 당신들은 짐승이었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원 4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대일피해보상소송 첫 공판이 열린 1992년 6월 1일 도쿄 지방법원 법정.

3명의 위안부 출신 할머니가 일제에 의해 참혹하게 상처받은 육신을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지난 50년의 세월을 눈물로 증언하고 있었다.

종군위안부, 전쟁터 일본 군인들의 성노리개. 그것은 일본이 저지른 20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잔악한 전쟁 범죄였다.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의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해 1992년 7월 발표한 위안부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부 공출은 일제가 32년 1월 제1차 상해사변을 일으키면서 일본 군인들이 점령지 중국의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파견군 참모부장이던 오카무라 네이지 중장이 나가사키 현지사에게 군대 위안부 모집을 부탁하면서 시작됐다. 오카무라 중장은 결국 종군 위안부의 창설자인 셈이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37년 7월 일본군은 남경 대학살을 자행한 후, 병사들의 강간 만행으로 반일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자 종군 위안부 정책을 본격적으로 채택했다.

일본은 패전 후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소각했지만, 일본 방위청에 보관돼 있는 일본 육군성과 중국 파견부대 사이에 교환된 비밀문서인 '육지밀대일지(陸支密大日誌)' 등에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위안부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육지밀대일지' 1938년 3월 지시서에는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 있고, 7월 지시서에는 '신속히 성적 위안 설비를 갖추라'고 명령하고 있다.

군 수뇌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도 있다. 이 자료는 1942년 3월 대만군 사령관이 육군 대신 앞으로 보낸 위안부 파견의뢰 전보, 위안소 규정 등으로 일본군이 위안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군 수뇌부가 관여했음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위안부 관련 자료는 1991~92년 사이 일본, 미국 등지에서 70여 건이나 발견됐다.

그러나 이 기록 이전부터 일본은 많은 한국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 것으로 나타난다. 본격적인 위안부 징발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중국의 일본군 주둔이 길어지면서부터이나, 92년 9월 우리 측도 참가한 가운데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여성회담 위안부 증언에서는 29년부터 끌려가 종군위안부를 했다는 증언들도 나와 그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많은 처녀들을 끌고 간 것이 증명되고 있다.

기록상으로 볼 때 1937년부터 한반도는 일인들의 여성 사냥터였다. 일본 헌병과 순사, 군의 지령을 받은 일인 포주는 마을을 다니며 강제로, 때로는 감언이설로 속여 12세부터 40세까지의 여성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어용선에 실어 전쟁터로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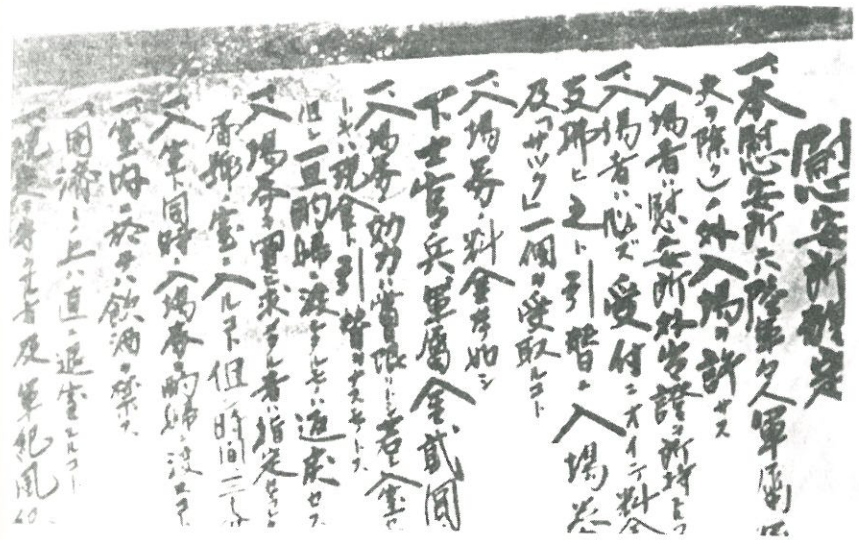
박모 할머니(증언 당시 69세)는 부산에 백화점 구경을 갔다 강제로 일본 순사에게 끌려갔고, 이모 할머니(증언 당시 68세)는 줄넘기를 하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데리러 왔다"는 일인의 말에 속아 따라갔다 위안부가 됐다. 정신대로 가지 않으면 경찰에 죄없이 잡혀 있는 아버지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협박에 끌려갔는가 하면, 소학교 5학년(16세) 자수시간에 일본 지도에다 벚꽃 대신 나팔꽃을 수놓았다고 주재소로 끌려가 일본 순사에게 성폭행당하고 위안부가 된 경우도 있다. 언니와 동생이 마을 어귀에서 쑥을 캐다 함께 끌려가 위안부가 됐는가 하면, 일본 군인들이 야간 작업중인 방직공장에 난입해 "앞으로 간호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며 한꺼번에 49명을 집단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1992년 2월 아사히신문과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구일본군 헌병 준위(증언 당시 83세)는 "지역별로 위안부 징발을 할당했다. 일본 육군은 1937년 7월의 중일전쟁 개시 때부터 민간 선박을 징발한 '어용선'에 무기·탄약과 함께 위안부들을 중국 중남부 지방으로 운송했다. 패전 발표 후인 1945년 8월 20일 상부의 명령에 의해 조선종군위안부의 관계 서류와 사진 등을 불태웠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일제가 마수를 뻗친 전쟁터 전역으로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짐짝처럼 끌려가던 12살짜리 어린 소녀는 가는 도중에 기착지에서 음부가 적다고 수술을 받았고, 어떤 처녀는 강제로 불임시술을 받기도 했다.

낯설고 물설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육신을 도륙하는 아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막사로 만든 한두 평 남짓한 마굿간 같은 곳에 수용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본 병사들을 상대해야 했다. 정조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한반도에서 자란 처녀가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은 하루에도



일본은 한반도에서 어린 처녀들을 잡아다 전방에 배치해놓고 군인들의 위안부로 삼았다. 사진은 전방위안소 이용 규칙을 알렸던 당시 포고문.

수없이 죽다 깨는 생지옥이었다.

"온갖 수모를 겪으며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본군들을 상대해야 했던 그 생활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일본 군인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군화발로 마구 짓밟았습니다. 병에 걸려 매일 구타당하다 죽은 위안부도 많았습니다."

황모 할머니(증언 당시 67세)는 1992년 위안부 관련 단체가 마련한 증언장에서 "당시는 죽고자 해도 죽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할머니는 얼마나 혹독하게 일본 군인들에게 당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군부대 주변 야산에 가건물로 설치된 막사나 임시 텐트 속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10분 간격으로 일본 군인들을

상대했습니다. 위안소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 있고 군인들의 감시가 심해 자살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길림성 위안소로 끌려갔던 황모 할머니는 "일본 군인들에게 시달리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이었습니다. 차라리 똥을 먹으라면 먹었지 그 짓만은 못할 짓이었다"고 당시의 고통을 표현했다.

1992년 1월 일본의 한 민간단체가 종군위안부 실상을 조사하기 위해 '핫라인'을 설치, 받아낸 구일본 군인들의 전화 증언도 잔악했던 당시를 증명하고 있다.

"종군위안부가 위안을 거부하자 병사들이 정종병으로 상대 여성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거부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살벌한 분위기였지요. 그리고 지휘관들은 무조건 성행위를 하도록 병사들에게 강요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들에게 능욕을 당한 위안부는 1980년대 말에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기 전까지는 약 7만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었다. 1995년 8월 한국 측 사회단체 등의 끈질긴 요구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조사해 그 내용을 공식 발표할 때도, 위안부 전체 숫자는 빠져 있어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협회 등 여러 사회단체들의 조사와 일본의 징용귀신 요시다 세이지(증언 당시 80세, 당시 강제연행 책임자)의 증언 등으로 볼 때 종군 위안부는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요시다 세이지는 1992년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당시 일본에서 종군위안부는 20만 명으로 추산했고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국의 젊은 여성 20만여 명이 일본 군인들의 성적노리개였던 것이다.

1992년 정부가 실시한 정신대 피해 접수 결과 신고를 한 사람은 모두 4백50명(종군위안부 2백11명, 근로정신대 2백39명)으로, 생존자는 종군위안부 1백3명이었고 근로정신대는 1백35명이었다. 또 북한에서 파악된 종군위안부 생존자는 1백23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위안부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지옥 같은 과거를 생각하기조차 싫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일부를 제외하면 위안부 생활중 숨지거나, 패전과 함께 일제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학살한 것으로밖에 추정할 수 없다.

"육신이 망가진 채 겨우 살아 고국으로 돌아와도 얼굴 한 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한 할머니의 증언은 또 다른 족적을 의미한다.

종군위안부, 그들의 소원은 "망가진 내 청춘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23. 남양군도

2만3천여 보국대 희생된 곳

남태평양 한가운데 비단 위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로 이뤄진 미크로네시아 연방 축(Chuck). 적도 바로 위 동경 10도 북위 152도에 위치해 트럭(Truk)으로 불리는 이곳은 1백 40여 개의 섬 주변을 산호가 방파제처럼 막고 있는 태평양의 천혜 요새다.

1825년 독일의 뒤베리가 발견한 뒤 이곳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 위임통치령으로 제국주의 손에 들어가 일본 해군사령부가 설치되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겪게 된다.

한국에서 4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에도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정신대로 수없이 끌려와 이름없이 숨져갔다. 끌려온 한국의 청춘남녀들은 이역만리에서 원통하게 숨져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이곳으로 끌려와 숨져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당시 태평양에서 일본군이 기지를 건설해 전쟁의 참화를 가장 많이 겪은 지역으로 사이판, 티니안, 팔라우, 트럭, 포나페, 퀴제린 등을 꼽는다. 이곳들은 일본의 전략 요충지였고 미군의 집중

포격으로 대부분 희생돼 생존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당시 이곳에는 원주민을 제외하고 일본군과 한국인들이 4만6천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의 절반이 한국인이었지요. 군인 외는 보국대원이었는데 비행장공사, 방공호, 항만공사 등 각종 공사 시설에 투입됐습니다. 전쟁 말기 먹을 것이 없어 원주민이나 보국대원 모두 배가 고파 고생했지요"

이곳 두브론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 기미요 아이세크 씨(증언 당시 67세, 보트 대여업)는 이곳에 투입됐던 한국인 보국대원이 약 2만3천 명 정도라고 증언했다.

기미요 씨의 증언에 따라 취재반이 둘러본 섬 전체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전쟁놀음에 끌려와 혹사당하며 남겨둔 흔적들이 미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무기 등과 함께 곳곳에 산재해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었다.

해안선을 따라 즐비한 콘크리트 구조물, 깊이를 확인할 수 없는 곳곳의 토굴,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는 해안선 구조물, 정글 사이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건설된 도로 등이 한국인들이 배고픔을 참으며 등뼈가 휘도록 일해서 만든 군사시설들이다.

기미요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인 위안소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14살 때부터 해군 군속으로 근무했다는 기미요 씨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두브론섬 해군본부 인근에 난고쿠료와 도키와료라는 위안소가 있었으며, 현재의 수도인 모엔섬에도 한국인 위안소가 있었는데 한 곳에 보통 40~50명의 위안부가 기거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처음 한국인 보국대원들이 오면 빨래 등을 하다가도 부두까지 뛰어나와 울고 불고 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인들이 그걸 알고 막았지요. 대부분 나이 어린 처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식료품은 해군에서 대주었고요."

그는 일본군들이 군인 이외에는 출입을 막아 위안소 안에서 어

남양군도 가운데 하나인 트럭제도의 군위안소. 취재반이 찾아낸 이 위안소는 건물은 썩어 없어지고 위안부들이 쓰던 빨래터만 남아 있었다.

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기미요 씨의 증언을 추론하면 트럭에는 약 1백50명에서 2백여 명의 한국인 위안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어떤 기록에는 이곳의 여러 섬에 5백여 명의 위안부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기미요 씨가 일러준 두브론섬의 위안소 난고쿠료는 해군부대 자리 근처의 밀림 속에 터만 남아 있었으나, 위안부들이 목욕을 했던 목욕탕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키와료와 모엔의 위안소 자리는 콘그리트 구조물 위에 원주민들이 주택을 짓고 살고 있어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고국에서 부모형제와 이별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강제로 이곳까지 끌려온 한국 처녀들은 죄수처럼 갇힌 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본 군인들로부터 능욕을 당한 것이다.

트럭에서 한국인 위안부들이 어떻게 일본군들에게 농락당하다

숨져갔는지는 함께 위안부 생활을 했던 일인 종군위안부의 증언에 생생하게 나타난다.

현재 일본 지바(千葉)현 매춘여성 갱생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시로타 스즈코 씨(증언 당시 72세)는 위안부 문제가 한창 한일 현안으로 떠오른 1990년 5월 일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인 위안부 실상을 폭로했었다.

시로타 씨는 18세인 1940년에 대만의 한 술집에서 일하다 위안부로 끌려가 남양군도 각 섬을 전전했으며, 패전 직전 트럭에서 40여 명의 한국인 위안부들이 일본 군인의 노리개감이 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한국인 위안부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일본군 보초의 엄한 감시 속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일본군을 상대했다. 때로는 최전방부대를 순회하며 그들을 받아야 했다. 이들에게는 이름 대신 고유번호가 매겨졌고, 상대할 여자의 고유번호를 든 일본 병사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오면 위안부들에게 광적인 학대를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수간호부라는 이름으로 장교만을 상대한 그녀도 하루에 몇 번씩 상대를 목졸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곤 했다며, 사병들의 전유물이던 한국 여자들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녀는 한국 위안부들 중엔 13세에서부터 40세가 넘는 여자도 있었다고 말해, 전쟁에서 밀리던 일본이 한국에서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전선으로 보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의 잔악한 행위는 미군이 상륙한 후에도 드러난다.

그녀는 미군이 트럭에 상륙하자 소위 '천황의 군대'라고 자부하던 일본군들이 종군위안부에게 저지른 만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정글로 대피해 있던 한국인 위안부들을 귀국시켜준다고 속여

다른 정글로 끌고 가 기관총으로 쏘아 죽였으며, 일부는 정글에 그대로 팽개친 채 일본인만 배에 싣고 도망했다고 증언했다.

팔라우섬까지 도망갔다 미군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때 남은 한국인 여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가끔 밤잠을 설친다며, 전쟁터 곳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일본 병사들의 동물적 욕구 대상이 됐던 한국인 동료들의 원혼이라도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랜 악몽을 들춘다고 폭로했다.

트럭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1944년 2월 10일에 시작된다. 이에 앞서 미군은 1943년 초부터 뉴기니아와 솔로몬군도로 진격해 일본군을 괴멸시켰고, 44년 1월에는 마샬군도를 점령했다. 여세를 몰아 공격 첫날 미군은 4백70대의 비행기로 트럭을 대공습했다. 이 공습으로 일본의 각종 함선 43척, 보유 비행기 2백79대 중 2백70대를 완전히 파괴시켰고 각 섬들은 초토화됐다.

살아 남은 사람은 참호 속의 일부였다. 그래도 미군은 트럭에 5만여 명의 군사를 상륙시켜 참호 속에서 마지막까지 발악하던 일본군을 전멸시켰다. 수송선을 타고 도주하던 일본 군함들도 대부분 미군의 폭격에 수장됐다.

미군이 상륙하기 직전에 괌의 일본군 기지를 출항해 트럭으로 향하던 4만 톤급의 대형 선박도 미군의 공습으로 격침됐다. 이 배에는 군수물자와 8천여 명의 한국인 보국대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순간에 그 많은 한국인들이 수장된 셈이다.

이렇게 해서 트럭은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나 그곳에 투입됐던 위안부를 비롯한 젊디젊은 청춘남녀 2만3천여 명은 전쟁에 광분해 발악하던 일본 때문에 이역만리서 무주고혼 불귀의 객이 된 것이다.

현재의 수도인 모엔섬 언덕배기에는 일본인들이 세운 일본인 위령비가 서 있다. 이 위령비는 일본 경찰 마크와 함께 '일본인보국대원지비(日本人報國隊員之碑)'라고 새겨져 있다. 그 옆에는 같은 크기로 함께 세운 한국인보국대원 위령비가 1980년대 말까지 세워져 있었으나, 1992년 확인한 결과 갑자기 없어져버렸다는 것이다.

그 비석은 한국인들이 이곳에 끌려와 고초를 겪다 숨졌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트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관섭 씨(진산기업 대표)가 수소문중이다.

트럭에 한국의 좋은 이미지 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씨는 "이 비석을 찾으면 부지를 마련, 이역만리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위령단을 만들 생각이다"고 말했다.